제 1 교시

2018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오르비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설승환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이 음악 시간에 '타악기'를 소개하는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청중을 둘러본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기억나는 타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으며) 역시 타악기를 기억하시는 분은 드물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타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타악기를 잘 떠올리지 못한 것은 타악기가 오케스트라 공연 내내 침묵한 채 있다가 가끔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타악기는 예외로 해야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악기는 바로 '팀파니'입니다. 팀파니는 여러 대의 북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음높이를 구현하는 타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전체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악기라서 팀파니 연주자는 제2의 지휘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팀파니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뒤쪽 중앙에서 지휘자와 마주 보며 오케스트라의 리듬을 잡아 주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팀파니가 지휘자와 마주 보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의 3악장 마지막 부분을 들어 볼까요? (음악을 들려주고 나서) '딴 따따따 딴 따따따'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소리가 팀파니 소리인데, 팀파니가 음높이와 리듬에 변화를 주면서 해가 뜨기 직전의 긴장감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타악기는 바로 '글로켄슈필'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악기의 특징은 소리에 있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실로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실로폰처럼 생겨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실로폰과 비교하여 글로켄슈필을 설명하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두 악기는 모양이 비슷하고 모두 음높이가 있지만 음색이 다르고 그 쓰임새 또한 다릅니다. 실로폰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어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느낌을 주고, 글로켄슈필은 여러 가지 길이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어 맑고 청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글로켄슈필은 천상의 소리에 비유되며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뷔시는 바다를 묘사하는 오케스트라 곡에서 물방울이 튀는 소리와 햇빛에 반사되는 수면의 반짝임을 이 악기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고 나서) 이 음악이 바로 드뷔시의 「바다」입니다. 하프 소리와 글로켄슈필 소리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타악기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바탕을 잡아 주기도 하고 음악의 주제나 내용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연주를 들을 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쉼표처럼, 타악기 또한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성하는 악기랍니다.

1. 발표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표자가 계획한 말하기 전략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흐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
도입	•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질문 던지기 …… ⓐ • 발표의 주제를 미리 안내하기
전개	•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 활용하기 …… ⓑ • 발표 중간에 앞에서 말한 내용 요약하기 …… ⓒ • 청중의 궁금증을 반영하여 발표 내용 조정하기 ……ⓓ
정리	• 발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강조하기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청자가 '발표를 들은 후'의 변화를 '발표를 듣기 전'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발표를 들은 후'의 변화 중 발표 내용을 <u>잘못</u> 이해한 것은?

발표를 듣기 전		발표를 들은 후
언젠가 글로켄슈필과 실로폰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	글로켄슈필과 실로폰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재질과 소리가 다르구나. …… ㄱ
연주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팀파니는 한 대의 북으로 된 악기야.	→	오케스트라 곡 연주에서 사용되는 팀파니는 여러 대의 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 ㄴ
타악기는 음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 같아.	→	보조적 역할을 넘어 오케스트라의 전체 바탕을 마련하는 타악기도 있구나. …… ㄷ
타악기는 다른 악기와 달리 음의 높이를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	→	타악기 중에서 글로켄슈필은 팀파니와 달리 음높이를 구현할 수 있구나. …… ㄹ
드뷔시의 「바다」는 하프 소리 때문에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	→	드뷔시의 「바다」는 하프와 글로켄슈필을 사용해 환상적인 느낌을 준 거구나. …… ㅁ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5] 다음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하는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갈등 상황>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A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 동네 주민들이 건립 취소를 요구하여 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직원 1 : 지금부터 A 동네와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 회의를 하겠습니다.

시 직원 2 : 먼저 동네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 3 :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신축될 시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이므로 기존의 시설물과는 달리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현재보다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봅시다.

시 직원 2 : 실제 협상에서 동네 주민들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보고서를 참고할 때, 대개 생태 문화 공원을 조성하거나 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 직원 3 : 우리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내용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A 동네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요구라면 협상을 포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나아요. 예를 들어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확충하거나 사업비가 A 동네보다 20% 더 들지만 입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면서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B 동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 직원 1 :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있는 곳은 더 이상 확충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직원 3 :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예산 상황과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볼 때, 총 사업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B 동네에 건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조건 중에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사업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직원 2 : 그렇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새로 건립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 정도를 A 동네 주민들로 고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직원 3 :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 직원 1 :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해야겠지요. 동네 주민들도 결국 시민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직원 2 : 맞아요. 우리는 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도 바로 제안을 거절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여 역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안은 당장의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

시 직원 1 :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3.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상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② 협상 상대에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있다.
③ 협상 상대가 제시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탐색하고 있다.
④ 협상 목표를 고려하여 협상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⑤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 <보기>는 협상 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윗글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협상에서는 '근원적 이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원적 이해란 협상을 통해 진정 얻고 싶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에는 ⓐ 자신의 근원적 이해와 ⓑ 상대의 근원적 이해를 분석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협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이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데, 이를 ⓒ 복안(腹案)이라고 한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 ⓓ 복안보다 더 유리한 제안은 수락해야 하고, ⓔ 복안보다 더 불리한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 : 원만한 합의를 통해 A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것
② ⓑ :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는 것

③ ⓒ :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확충하는 것
④ ⓓ : A 동네에 시설을 건립하면서 추가 비용이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발생하는 것
⑤ ⓔ :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5. <보기>는 위 회의를 바탕으로 실시된 실제 협상의 일부이다. ㉮에서 '시 직원 2'가 [A]를 반영하여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 직원 1 : 그렇다면 문화 시설을 갖춘 생태 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 : 좋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비용 부족과 다른 동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 이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습니다.
시 직원 2 : (㉮)

① 그러면 이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시에서는 A 동네에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동네 주민들이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② 여러분께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테니, 동네 주민들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③ 우리 시에서 A 동네의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견만큼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④ 여러분도 우리 시의 일원인 만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한 퇴비의 판매 수익금으로 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어떨까요?
⑤ A 동네도 우리 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설 완공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생태 문화 공원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는 동네의 집값도 오를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6~8] (가)는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선생님과 나눈 '대화 상황'이고, (나)는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 상황

도연 :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청소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글을 제대로 써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선생님 :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우선 대회 포스터를 줄 테니 잘 읽어 보렴. 특히 대회 운영의 취지나 글쓰기 주제 등은 꼭 확인하렴.
도연 : 대회 운영 취지를 보니 '일반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네요.
선생님 : 그러면 관련된 주제를 잘 선정해야겠구나. 도연이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사회 문제는 없니?
도연 :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럼 관심사와 관련된 초고를 먼저 작성해 오렴. 나중에 초고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나) 초고

[1]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그것은 비행 청소년, 학교 중도 탈락자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이런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얼마나 될까?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약 39만 명에 이르며, 매년 6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28만 명 정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에 불과한 문제도 있다.

[3] 2015년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특별한 근로 경험이 없이 친구 집이나 피시방, 숙박업체 등에서 생활하였으며, 단순 근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홀대가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인디언 속담과 같이, 사회 공동체의 다각적인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원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6. <보기>는 ㉠의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자신의 관심뿐 아니라 글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함.
ㄴ.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구조를 결정함.
ㄷ. 독자의 관심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하고 내용을 생성함.
ㄹ. 독자의 주의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방식을 활용함.
ㅁ. 외부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쓰기 윤리를 준수함.

① ㄱ : 평소 관심을 반영하면서 대회 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정해야겠군.
② ㄴ : 설득의 목적에 맞게 '현황 제시-문제 진단-해결 방안'의 구조를 지닌 논설문을 써야겠군.
③ ㄷ :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밝히고,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겠군.
④ ㄹ : 자문자답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거나 속담을 인용하여 독자의 주의와 관심을 유도해야겠군.
⑤ ㅁ : 글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자료의 출처와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야겠군.

7. <보기>는 ㉡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고쳐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렴."
- "제시한 주장이 중요한 이유를 사실 논거를 사용하여 밝히면 좋겠어."
- "설의법을 사용하면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태도 변화이다. 즉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학교 밖'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들도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비행 청소년 정도로 여길 수 있겠는가?
③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성인 10명 중 6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④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학업 중단 예방부터 학업 중단 후 진로 취업 지원까지를 담당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

8. (나)의 ①~④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Ⅰ. 전문가 인터뷰

"현황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지원 센터와 연계된 학생들입니다. 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임의로 그것을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여 그들이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신문 기사

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주된 목표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정부의 지원 아래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Ⅲ. 통계 자료(2016년 ○○교육청)

(1) 학교 중단 후 근로 경험 (단위 : %)

음식점 서빙 및 배달	44.4
퀵 서비스 및 전단지 돌리기	9.7
편의점·슈퍼 점원	8.5
식당·뷔페 요리 보조	5.5
없음	31.9

(2)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프로그램

1순위	검정고시 지원
2순위	건강 검진 제공
3순위	진로 탐색 체험
4순위	직업 교육 훈련
5순위	질병 치료

① [1] : 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연관 지어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가해야겠군.
② [2] : II를 활용하여 지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한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③ [3] : III-(1)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단순 근로 경험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군.
④ [4] : III-(2)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야겠군.
⑤ [4] : I과 II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법률 개정이나 예산 지원 등으로 구체화해야겠군.

[9~10] 다음은 '작문 과정'에 따라 학교 신문에 실을 여행 소감문의 '초고'를 작성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정]

계획하기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주제를 설정한다.
⬇	
내용 생성하기	여행지의 달라진 모습을 상상하며 갖게 된 설렘을 드러낸다. ····· ㄱ 여행지에서 느낀 감상과 문학 작품을 관련짓는 내용을 포함한다. ····· ㄴ
⬇	
조직하기	여행지에서 경험하고 느낀 일을 여정에 따라 추보식으로 구성한다. ····· ㄷ
⬇	
표현하기	여행지에서 접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ㄹ 여행지를 떠나는 감회를 여운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 ㅁ
⬇	
고쳐쓰기	단어, 문장, 호응 관계, 접속어 등의 적절성을 살펴 수정한다.

[초고]

고향 강변의 구불구불한 옛 기찻길 구간이 최근 자전거 길로 탈바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 기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다녔던 추억을 떠올렸다. ○○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 조성된 자전거 전용 길을 달려 보고 싶은 생각에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가 보았다.

자전거 길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한 우리는 인근의 자전거 대여점으로 갔다. 나란히 서 있는 자전거들은 튼튼한 바퀴와 형형색색의 몸체를 뽐내며 달릴 준비가 됐으니 자기 안장에 올라타라고 조르는 것 같았다. 내 눈길을 끄는 자전거를 하나 골라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다. 자전거 길의 첫 구간은 오르기 힘든 경사가 없어 힘들지 않게 달릴 수 있는 길이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강을 따라 달리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중에 조그만 옛 간이역에 멈춰 선 우리는 잠깐 쉬어 가기로 했다. ㉡ 사진을 설명해 주시는 분은 이 역이 옛 건축의 특징이 잘 보존된, 몇 안 되는 곳이라 했다. 역의 대합실에서는 이 역과 관련된 많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철길을 달리는 옛 증기기관차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내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대합실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수업 시간에 읽었던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연상케 했다. 늦은 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시의 한 장면은 마치 이 역이 그 작품 속 사평역일지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했다. 차후에 이 역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간이역에서 나와 10여 분을 달리자 철교 구간이 나타났다. 바닥을 나무로 깔아 놓은 다리 위를 달릴 때 나는 옆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교각 밑으로 흐르는 물결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 그래서 다리 끝 지점에서 그 두려움은 성취감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기차를 타고 철교를 지날 때는 느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철교 구간을 지나 한 20분을 달리자 어릴 때 동생과 즐겁게 놀았던 □□ 저수지에 도착했다. 저수지에는 그 옛날 친구들처럼 오리 배들이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오랜만에 탄 오리 배는 더 이상 다리가 아닌 모터의 힘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나는 어린 시절 ㉣ 누가 더 페달을 빨리 밟는지 경쟁하며 즐거워 하던 때를 추억할 수 있었다.

되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자전거 길의 풍경은 햇빛의 각도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묘미를 주었다. 기찻길에 남아 있는 아련한 옛 추억을 ㉤ 쫓아 강변의 정취에 흠뻑 빠진 사이 어느새 자전거 길의 끝에 도착해 있었다.

자전거 길을 다 돌아 다시 집으로 가는 길, 자전거 길 길목에 서 있는 표지판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자전거에 몸을 싣고, 기차에 마음을 싣고, 강변에 추억을 싣고…….'

9. '작문 과정'의 ㄱ~ㅁ 중, '초고'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0. 작문 과정의 '고쳐쓰기'를 고려하여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조성한'으로 수정한다.
② ㉡ :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 뒤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③ ㉢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교체한다.
④ ㉣ : 생략된 문장 성분을 고려하여 '동생과'를 삽입한다.
⑤ ㉤ : 단어 사용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좇아'로 고친다.

11.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습 자료]

- 절대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시제.
- 상대 시제 : 주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학습 과제]

ㄱ~ㄹ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가 ㉮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학교 숙제를 마친 그녀가 음악을 듣는다.

ㄱ.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수박을 우리가 다 먹었다.
ㄴ. 퇴근한 후에 오빠는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왔다.
ㄷ. 우리 반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을 무척 기다렸다.
ㄹ. 나는 그 친구에게서 그가 입원한 사실을 방금 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심리가 주된 동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말 중의 하나가 '줄임말'이다. '줄임말'은 본말보다 음절수가 하나 이상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 형식으로,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ㄱ. 가지다 → 갖다, 견디어 → 견뎌, 아이 → 애
ㄴ. 노동조합 → 노조, 몰래 카메라 → 몰카, 한국은행 → 한은
ㄷ. 서양복 → 양복, 자외광선 → 자외선, 거스름돈 → 거스름
ㄹ. 태권도+에어로빅 → 태권로빅, 자동차+가계부 → 차계부

ㄱ은 음운론적인 과정을 통해 음절수가 감소된 경우이다.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준말'의 예들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음운론적 차원에서 음절이 줄어든 준말은 음운이 '탈락'되거나 '축약'되면서 형성된다. 전자는 모음 중 한 모음이 생략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마음 → 맘', '디디고 → 딛고'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두 모음이 결합하면서 두 모음과는 다른 제3의 모음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나이 → 사내', '조심스러이 → 조심스레'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ㄴ, ㄷ, ㄹ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음운론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다. ㄴ은 단어와 단어가 연쇄되어 있을 때, 각각의 첫 음절만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두자어(頭字語)'라고 한다. 두자어는 본말이 구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고유 명칭처럼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ㄷ은 복합어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생략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절단어(切斷語)'라고 한다. 절단어는 보통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지지만 간혹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ㄹ은 둘 이상의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혼성어(混成語)'라고 한다.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두 단어가 갖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f에서 '줄임말'의 유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a. '슈퍼'는 원래 '슈퍼마켓'에서 온 말이지.
b. '어제저녁'은 '엊저녁'으로 줄여 쓸 수 있어.
c. '고속철도'를 간단하게 '고속철'이라고도 해.
d. '불백'은 '불고기 백반'이라는 말이 준 거야.
e. '라면과 떡볶이'를 합치면 내가 좋아하는 '라볶이'.
f. '선거 관리 위원회'를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하지.

① a, b ② a, c ③ b, e
④ a, c, e ⑤ b, d, f

13. 다음은 ㉠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준말'에 적용된 항목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음.
(나)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다)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이-'가 앞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하고 뒤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함.
(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마)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음.

① '저리로'는 (가)를 적용하여 '절로'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② '보이다'는 (나)를 적용하여 '뵈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③ '누이어'는 (다)를 적용하여 '누여'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④ '점잖지 않다'는 (라)를 적용하여 '점잖찮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⑤ '정결하다'는 (마)를 적용하여 '정결타'로 줄여 쓸 수 있겠군.

14. <보기>에서 제시한 ㄱ~ㅁ의 '복수 표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너희는 학교로 모여라.
너희들은 학교로 모여라.
ㄴ. 친구들이 병들을 모았다.
*음료수 세 병들이 깨졌다.
ㄷ. *거기들에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여기들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ㄹ. *세종대왕들이 한글을 창제했다.
우리 학교는 세종대왕들을 길러내고 있다.
ㅁ. *일과 이를 더하면 삼들이다.
*지고 이기고는 둘째들 치고 경기에 집중하자.

*는 비문임.

① ㄱ : 복수의 의미를 갖는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ㄴ : 명사가 단위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③ ㄷ : 가까운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ㄹ :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⑤ ㅁ : 체언 중에서 수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15. <보기>의 (A), (B)에 들어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보 기>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

결합하는 어간 \ 후속하는 어미	안울림소리로 시작	울림소리로 시작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ㅁ, ㄹ'로 끝남.	-숩-	-슳-
'ㄱ, ㅂ, ㅅ, ㆆ'으로 끝남.	-숩-	-슳-
'ㄷ, ㅈ, ㅊ'으로 끝남.	-줍-	-즣-

(가) 무량수불 □ 사ᄅᆞᄆᆞᆫ
[→ 보- + (A) + -온]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을) 뵌 사람은

(나) 무량수불ᄭᅴ 나 정법 □
[→ 듣- + (B) + -고져]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께 나 정법(을) 듣고자

	(A)	(B)		(A)	(B)
①	-슳-	-즣-	②	-슳-	-즙-
③	-슳-	-숩-	④	-숩-	-즙-
⑤	-숩-	-숩-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 거래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A]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비해 3개월 후 수확하는 배추를 채소 중개상에게 1포기당 8백 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을 선물 계약, 8백 원을 선물 가격이라 한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소 중개상은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일까? 만약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상으로 크게 뛰어오르면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추를 경작한 농민과는 달리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뛰어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농민이 우려하는 위험을 대신 떠맡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이 중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외환 즉, 통화 선물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격, 즉 달러 환율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의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달러 선물 시장에서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식품을 만드는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 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현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산출	손익
현물	-50원(1,300원-1,350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선물	50원(1,300원-1,350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표> A 사의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

반대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의 경우 받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달러 선물을 팔기로 계약하여 선물의 가격 변동을 이용함으로써 손실에 대비하게 된다.

㉠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계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선물이나 옵션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서 손실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
② 선물 거래로 인한 부작용
③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④ 선물 거래와 시중 금리의 상관관계
⑤ 선물 거래에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7. [A]의 거래 방식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정된 소득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군.
②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인 것이군.
③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이군.
④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손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군.
⑤ 소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거래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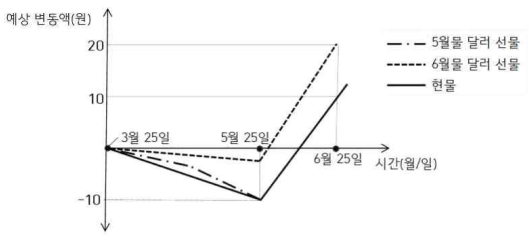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과 달리 가격 변동의 폭에 따라 손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② ㉡은 ㉠과 달리 약정한 상품에 대한 매매의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은 ㉠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④ ㉠, ㉡은 모두 계약 시점과 약정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⑤ ㉠, ㉡은 모두 위험 요소로 인한 시장 내의 경제적 손실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19. <보기>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회의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황 보고자 : 우리 회사는 오늘 3월 25일에 미국 회사에 LCD 패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2개월 후인 5월 2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금융 대응팀에서 여러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3월 25일부터의 환율 및 달러 선물 가격의 변동을 아래와 같이 예측했습니다. 3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50원/US$이고, 5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260원/US$입니다.



김 대리 : 달러 현물 가격의 추이로 볼 때 5월 25일에 현물로 대금을 받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네요. …… ㄱ
최 과장 : 5월 25일에 거래되는 5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한다면 현물로 받은 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ㄴ
이 차장 : 전례가 있으니 미국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늦춰 6월 25일로 연기한다면 굳이 5월물 달러 선물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ㄷ
고 대리 : 말씀하신 대로 대금을 받는 날짜를 6월 25일로 1개월 더 연기할 수 있다면 현물 거래로도 우리 회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ㄹ
박 대리 : 현재 6월물 달러 선물 가격은 1,280원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연기하고, 6월 25일에 거래되는 6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ㅁ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옵션 거래의 대상인 상품 Ⓐ, Ⓑ가 계약일에 약정한 가격 대비 만기일의 가격이 Ⓐ는 상승하였고, Ⓑ는 하락하였다. 이에 Ⓐ, Ⓑ에 대한 옵션을 거래한 사람들은 손익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① Ⓐ에 대한 콜옵션을 판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② Ⓐ에 대한 풋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③ Ⓑ에 대한 콜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았겠군.
④ Ⓑ에 대한 풋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⑤ Ⓑ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지 않았겠군.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은 생존을 위한 열을 물질대사 혹은 외부로부터 얻는다. 조류와 포유동물들은 주로 내온성인데, 이는 체내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열에 의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온 동물은 외부 온도와 독립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성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양서류, 파충류 등은 주로 외온성인데, 이는 대부분의 열을 외부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온 동물은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성을 가진다. 그밖에 박쥐, 벌 등은 내온성과 외온성을 겸비하는데, 이런 동물을 이온 동물이라 한다.

내온 동물이건 외온 동물이건 간에 동물들이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으로부터 획득한 전체 에너지 중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동물이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 물질대사율이라 하는데, 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요구하는 생화학적 반응의 총합이다. 동물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대사율은 열 상실률로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대사율 중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세포 활동, 호흡, 심장 박동과 같은 기본적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 최소대사율이라 한다. 최소대사율은 물질대사율과 달리 그 측정 방법이 다른데, 내온 동물의 경우 최소대사율은 열의 생성이나 방출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즉 쾌적한 온도 범위 안에서 측정된다. 반면 외온 동물의 최소대사율은 특정한 온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외부의 온도 변화가 체온과 물질대사율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A] 동물의 물질대사율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몸의 크기이다. 커다란 동물들은 보다 큰 몸 크기(몸무게)를 갖고 있어서 작은 동물보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한다. 하지만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온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길이, 표면적, 부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길이가 L배 커지면, 표면적은 L^2, 부피는 L^3에 비례하여 커진다. 예를 들어 몸길이가 2cm인 동물 A와 4cm인 동물 B의 경우 표면적은 4 : 16, 부피는 8 : 64가 된다. 그리고 대사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세포 수, 즉, 부피에 비례하고, 외부에서 얻거나 외부로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위의 예에서 A의 경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1/2(4/8)인 반면, B는 1/4(16/64)이다. 이는 어떤 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와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면 주변과의 열교환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물질대사율과 몸 크기의 관계는 체세포와 조직에 의한 에너지 소모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생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쥐는 코끼리에 비해서 g당 약 2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처럼 좀 더 작은 동물들의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이 높은 것은 작은 동물의 높은 산소운반율과 관련된다. 좀 더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호흡률, 혈액량, 심장 박동수를 가진다. 따라서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무게 g당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몸 크기 외에 동물의 물질대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활동, 환경, 체온 조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컷 물개는 먹이를 잡기 위해 헤엄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지출의 많은 부분을 활동에 사용한다. 수컷 물개는 온도가 낮은 극지방에 서식하지만 피부 표면에서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또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생식에는 연간 에너지의 6%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물질대사를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년 중 어떤 계절의 온도가 극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고, 이용 가능한 음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동물들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 휴면이다. 휴면은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데, 휴면에 들어가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물들의 체온은 활동할 때보다 떨어진다. 휴면에는 겨울철의 추위와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 일어나는 동면, 여름철의 고온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하면이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물질대사율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획득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② 내온 동물의 경우 몸무게 g당 필요한 에너지는 몸 크기에 반비례한다.
③ 대사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열에너지는 동물의 몸무게가 작을수록 적다.
④ 내온 동물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를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⑤ 이온 동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을 공급받거나 물질대사를 통해 열을 생산한다.

22. <보기>는 동물들의 '에너지 지출과 에너지 할당'을 나타낸 표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각 항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항목		a. 남극에 서식하는 10kg의 펭귄	b. 온대 기후에 서식하는 0.02kg의 사슴쥐	c. 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4kg의 비단뱀
연간 에너지 지출량		340,000kcal	4,000kcal	8,000kcal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		34kcal(년)	200kcal(년)	2kcal(년)
에너지 할당	최소 대사율	37%	23%	39%
	성장	2%	0%	15%
	체온 조절	15%	33%	0%
	⋮	⋮	⋮	⋮

① a~c의 '연간 에너지 지출량'을 비교해 보니, 동물의 물질대사율은 몸무게가 커질수록 증가하는군.
② a, b의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을 비교해 보니, b가 a보다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이 더 크겠군.
③ a~c의 '최소대사율'을 비교해 보니, 단위 시간당 열 상실률은 c, a, b 순서로 크겠군.
④ a, c와 달리 b가 '성장'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인 것을 보니, b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체이겠군.
⑤ a, b와 달리 c가 '체온 조절'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인 것을 보니, c는 변온성을 가지겠군.

23. ㉠, ㉡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물의 부피와 연관성이 있다.
② 동물이 처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③ 동물 신체의 열 상실률로 측정할 수 있다.
④ 일정한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다.
⑤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르다.

24.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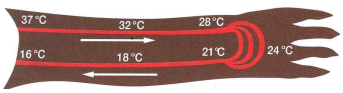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크기보다 1/100 작은 초소형 인간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상력 속에 등장하는 그런 초소형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　　)

① 외부와의 열교환이 느려져서 물질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물질대사율이 작아지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부피가 줄어들면서 열에너지 생성을 위한 물질대사 활동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④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항온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부피와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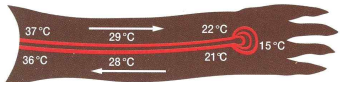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역류 열교환'의 효과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역류 열교환' 방식을 선택했다. 옆의 그림에서와 같이 동맥과 정맥이 역평행 방향으로 인접하게 배열되는 역류 열교환은 심장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혈액이 동맥을 통하여 흐를 때 말단(손발)으로부터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 안의 혈액으로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역류 열교환이 없을 때 혈액의 흐름



역류 열교환이 있을 때 혈액의 흐름

① 체내의 산소운반율을 높여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군.
② 열 손실을 줄임으로써 물질대사율 중 체온 조절에 쓰이는 에너지 비율을 줄일 수 있겠군.
③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내의 열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겠군.
④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혈류의 양을 조절하여 체세포와 조직에 의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겠군.
⑤ 최소대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외부와의 열교환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군.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요에 따라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② 활동할 때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다.
③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동물들의 노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④ 서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동을 줄여서 물질대사를 감소시키는 생존 전략이다.
⑤ 외부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서구에서 최초의 문학 이론서라고 알려져 있다. 모든 시초에는 뒷날의 발전 가능성이 ⓐ 잠재해 있는 법이지만 「시학」의 경우는 각별히 그러하다. ㉠ 「시학」에서 맹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던 중요 쟁점들이 뒷날 많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싹을 틔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이 주된 관심의 대상인 이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것은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고 하면서 카타르시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정화(淨化)의 의미로만 알려져 있는 이 카타르시스는 이른바 정화이론(淨化理論)과 조정이론(調整理論)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정화이론에서는 카타르시스를 재귀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정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비극이 연민을 환기하여 구경꾼들을 겁쟁이로 ⓑ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문학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플라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화'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학」의 해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고대 의학에서 쓴 동류요법(同類療法)의 개념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열병은 열기로 다스리고 한기는 한기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류요법에 의한 카타르시스 해석 즉 정화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최면을 통해 회상시킴으로써 신경증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신분석법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들여 몰아내는 정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정화이론에 반론을 펼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감정이 이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인간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감정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때에만 해롭다고 ⓒ 간주했다. 이처럼 조정이론은 감정의 몰아내기라는 개념을 동반하지 않는다. 연민은 흔히 좋은 감정으로 파악되며 적절한 공포는 건강에 좋은 것이 된다. 이 조정이론은 정신의 건강이 양극단 사이의 중용에 있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논거를 ⓓ 원용한 것이다. 이 윤리학에 기초한 조정이론에 따르면 카타르시스는 일종의 정신적, 도덕적인 길들이기가 된다. 이를 통해 비극을 구경하는 이들은 연민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의 적절한 효용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조정이론은 다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르네상스 시기에 카스텔베트로를 ⓔ 위시한 몇몇은 비극이 감정을 단련시켜 준다고 하였다.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동료의 죽음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되듯이 구경꾼들은 비극 속에서 끔찍하고 보기 딱한 사건을 구경함으로써 가파른 삶의 실상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독일의 레싱 같은 비평가는 비극이 감수성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구경꾼의 심성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둘은 모두 조정이론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플라톤이 비극의 가치를 공격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 비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논의된 카타르시스는 오늘날까지 논쟁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쟁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27. 윗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① 비극의 효용을 부정하는 플라톤과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논쟁이 후대의 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화두인 카타르시스가 후대 이론가들의 여러 논의로 파생되면서 비극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화와 조정의 두 관점으로 해석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 이론가들이 통합시킴으로써 「시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의 몇몇 이론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의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⑤ 비극의 향유자가 경험하는 카타르시스의 작용 원리를 후대 이론가들이 고전 의학이나 특정 윤리학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극의 효용성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정이론은 감정이 조정되는 양상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②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은 카타르시스의 정화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해롭다고 보았다.
④ 플라톤은 이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극단보다는 중용을 지향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29. <보기>는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과제 발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자, 지난 시간에는 카타르시스에 대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작품 「리어왕」을 각자 읽어 오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리어왕」을 읽고 난 후에 개인이 느낀 감상을 카타르시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가 영 : 셋째 딸 코델리아가 왕으로부터 부당한 버림을 받는 장면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혼이 났던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십 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영 : 질투에 눈이 먼 첫째 딸이 둘째 딸을 독살한 후 가책을 느껴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이 헛된 야망으로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항상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영 : 리어왕과 그 딸들이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접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퉁명스러웠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모님과 누나, 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① '가영'이 코델리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마음속에 환기된 후 이것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경험을 한 것은 카타르시스의 재귀적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가영'이 코델리아에게서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동류요법과 관련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나영'이 두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한 것은 카스텔베트로가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나영'이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도덕적으로 길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⑤ '다영'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이전과 달리 가족들을 대하는 심성이 부드럽게 순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레싱이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②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③ ⓒ : 확실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함.
④ ⓓ : 주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문헌 내용을 끌어다 씀.
⑤ ⓔ :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나'(권기용)는 아내 수술비를 구하고자 복면강도가 되어 집주인인 오 선생네 안방을 침입하지만 정체가 탄로 나고 만다. 그 길로 집을 나온 '나'는 자살을 시도하다 깨어난 뒤,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취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전과 기록과 나이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림산업 사장이 타고 가던 차에 치이게 된다. 동림산업 측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보상금과 취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자, '나'는 취직을 택한다.

"권 씨, 웃으시오, 웃어요."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자 별안간에 비서가 강요하다시피 나한테 웃음을 재촉했다. 쌍방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기자라는 친구가 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붕대에 묶이지 않은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왜들 이러는 거요?"

안 나오는 웃음을 강요당하는 것도 마뜩찮은 일이거니와, 더구나 허락도 없이 남의 얼굴을 멋대로 훔치려 드는 그 소행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구태여 사진까지 찍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나만큼이나 놀랐던지 오 선생도 옆에서 항의를 했다.

"다아 권 씰 위하느라고 그러는 거요. 기왕 찍는 김에 기분 좋게 한바탕 웃는 포즈를 취해 주시오."

비서의 주문에 따라 기자가 병상 주위를 돌면서 마구 셔터를 눌러댔다.

(중략)

다음 날 오후에 오 선생이 석간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이렇게 지독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A] 나는 오 선생이 코앞에 펼쳐 보이는 기사를 읽었다. '마르지 않은 인정의 샘'이라는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자해(自害) 상습범에 뻗친 갱생(更生)의 손길'이라고 적혀 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 없다는 듯이 손바닥을 펴서 턱 부근을 약간 가리고 있는 사내의 사진이 그 아래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비(前非)를 뉘우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허위투성이의 기사였다. 우선 '권기용 씨(가명·37세, 경기도 성남시 태평 동 거주)'라고 기재된 인적 사항부터가 엉터리였다. 엄연한 내 본명을 가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특히나 심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은 그 점이었다. 멀쩡한 대낮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가 전과자임을 밝힌 그 대목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해 행위를 하다가 얻은 전과인 듯이 그릇된 인상을 줄 염려가 다분하게 매우 애매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나를 자기 회사 사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응달 속의 인생에 거듭나는 기쁨을 안겨 준 미담의 주인공 오 사장은 왕방(往訪)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남들이 알게 돼서 그저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끝으로 그 기사는, 화제의 인물 오만한 사장이 과거에도 부지기수로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처럼 도운 바 있는 숨은 독지가이며, 그가 경영하는 동림산업은 목화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전도유망한 신진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따위 놈들은 가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명예 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B] 오 선생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연신 안절부절을 못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내가 그를 진정시키고 위로할 정도였다. 그의 흥분을 나는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크게는 구두를 태운 뒤로 무섭게 변모해 버린 이웃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자 새로운 우려의 표시일 것이었다. 그리고 작게는 처음부터 이번 일에 대리인 자격으로 깊이 관여한 데서 느껴지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 선생이 걱정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로서는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비해 나온 수많은 경우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전 저대로 또 계산이 있습니다. 실직자인 데다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건 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허위 보도를 하게 만든 건 그들의 약점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존동생 하겠다는 세상 아닙니까. 내 손에도 약점 한 가지가 쥐어진 이상 저들이 나한테 건넨 약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권 선생,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소?"

오 선생이 그렇게 흥분하면 할수록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 선생한테 빚지고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나 부끄럽긴 아마 마찬가질 겁니다. 허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라도 빚 안 지고 신세 안 져도 되는 부끄러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 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다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허지만 오 선생도 아시다시피 ㉮ 이미 구두를 태워버린 겁니다."

"땅바닥에다 내던지는 걸 주워 먹는 똥개 신세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천만에요! 내 눈엔 지금 권 선생이 똥개 그 이하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에 단대리에서 살 적에 우리집 동준이란 놈이 시궁창에다 과자를 집어던지는 걸 봤습니다. 동네 꼬마 하나가 그걸 주워 먹겠다고 둑 밑으로 내려갑디다. 그걸 보고 나는 꼬마 녀석을 때리는 대신에 내 자식 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수진리 고개 밑에 가면 양산도집이란 술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전에 작부로 일하던 신 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여자를 오 선생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아마 오 선생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 누구를 때렸다는 말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오 선생 생각은 오 선생이 경험한 바탕 안에서만 출발하고 멈춥니다. 자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는 애당초 무립니다. 오 선생은 보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본 적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시위하다 말고 엎어진 트럭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참외를 주워 먹는 인생들을 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런 일 모두가 사회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탓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거니까 뒤늦게나마 좀 넉넉해보자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선생더러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속으로 끝까지 가 봐도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되돌아서 들판 쪽으로 나와 보려는 것뿐입니다."

- 윤흥길, 「직선과 곡선」 -

3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B]에서 '나'가 보이는 내적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B]에서는 [A]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져 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A]에서는 '나'의 현실적 상황을, [B]에서는 '나'의 주관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A]에서는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B]에서는 '나'의 회상을 바탕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구체적인 행동 묘사와 '나'의 추측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비합리적 사회 상황, 물신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모습과 금력을 바탕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본가의 교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인물들 간의 유대감을 모색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유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① '나'가 '자해 상습범'으로 조작되어 기사화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자본가의 폭력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권 씨'가 본명이 가명으로 바뀐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도된 것은 산업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③ '오 사장'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자본가의 위선적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양산도집'의 '신 양'을 '오 선생'에게 보여 드리고 싶다는 '나'의 말에는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겠군.
⑤ '나'가 기사 조작을 문제화하려는 '오 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33. <보기>는 윗글의 전작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를 고려할 때 ㉮의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보 기>

비잉 둘러가며 구두 전체에 약을 한 벌 올리고 나서 가볍게 솔질을 가하여 웬만큼 윤이 나자 이번엔 우단 조각으로 싹싹 문질러 결정적으로 광을 내었다. 내 보기엔 그런 정도만으로도 훌륭한 것 같은데 권 씨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만한 일에도 무척 힘이 드는지 권 씨는 땀을 흘렸다. 숨을 헉헉거렸다. 침을 퉤퉤 뱉었다. 실상 그것은 침이 아니었다. 구두를 구두 아닌 무엇으로, 구두 이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발에다 꿰차는 물건이 아니라 얼굴 같은 데를 장식하는 것으로 바꿔놓으려는 엉뚱한 의지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신들린 마음에서 솟는 끈끈한 분비물이었다. 권 씨의 손이 방추(紡錘)처럼 기민하게 좌우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도금을 올린 금속제인 양 구두가 번쩍번쩍 빛이 나게 되자 권 씨의 시선이 내 발을 거쳐 얼굴로 올라왔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의 눈이 자기 구두코만큼이나 요란하게 빛을 뿜었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중 -

① 자신이 처한 가난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을 행동화한 것이다.
② 자존심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사회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③ 지켜왔던 자존심을 접고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심리를 표출한 것이다.
④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현실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한 것이다.
⑤ 현실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34.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오 선생'의 시선으로 요약하여 재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한 것이다.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3점]

<보 기>

㉠ 권 씨가 동림산업 사장이 탄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 갔다. 회사의 비서라는 사람이 병원에 왔고, ㉡ 권 씨의 취직을 대가로 교통사고를 무마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비서가 데려온 기자가 갑자기 권 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 나도 놀랐지만 권 씨도 놀라 함께 항의를 했다. 더욱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다. 피해자인 권 씨가 신문 기사에서 자해 상습범으로 조작되었고, 가해자인 회사의 사장은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던 것이다. ㉣ 기사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함께 분노했지만 나와 달리 권 씨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기사의 조작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던 권 씨이기에 취직이 꼭 필요한 처지였겠지만, 인간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동안 권 씨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했는데, 이번 일로 나는 권 씨에 대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B]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C]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D]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

* 삿 : 갈대로 엮은 삿자리.
* 북덕불 : 짚이나 풀 등을 태운 화롯불.
* 나줏손 : 저녁 무렵.

(나)

㉠ 한기태심(旱旣太甚)*ᄒᆞ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놉흔 논애 잠싼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딕혀 두고 쇼 ᄒᆞᆫ 젹 듀마 ᄒᆞ고 엄섬이 ᄒᆞᄂᆞᆫ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셔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ᄒᆞ온 후(後)에,

어화 긔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닉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원딕 긔 엇지 와 겨신고. 년년(年年)에 이러ᄒᆞ기 구차(苟且)ᄒᆞᆫ 줄 알건만ᄂᆞᆫ,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ᄒᆞ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ᄒᆞ다마ᄂᆞᆫ 다만 어제밤의 거넌집 져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ᄭᅮ어닉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ᄒᆞ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 내일(來日)로 주마ᄒᆞ고 큰 언약(言約) ᄒᆞ야 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ᄒᆞ닉* 사셜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ᄒᆞ면 혈마 어이홀고. ㉡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애 긔 즈칠 ᄲᅮᆫ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돌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ᄒᆞᆫ 대승(戴勝)은 이닉 한(恨)을 도우ᄂᆞᆫ다. 종조추창(終朝惆悵)*ᄒᆞ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ᄂᆞᆫ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ᄂᆞ다. **세정(世情) 모ᄅᆞᆫ 한숨**은 그칠 줄을 모ᄅᆞᄂᆞ다. ㉢ 아ᄭᅩ온 져 소뷔*ᄂᆞᆫ 볏보님도 됴흘세고. 가시 엉긘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ᄂᆞᆫ,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듸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뎌 두쟈.

강호(江湖) ᄒᆞᆫ 쑴을 ᄭᅮ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ᄒᆞ야 어지버 이져써다.** 첨피기욱(瞻彼淇澳)*ᄒᆞᆫ딕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딕 ᄒᆞ나 빌려ᄉᆞ라. 노화(蘆花) 깁픈 곳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ᄒᆞᆫ 백구(白鷗)**야 오라 ᄒᆞ며 말라 ᄒᆞ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인가 너기로라.

㉣ 무상(無狀)ᄒᆞᆫ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ᄂᆞᆫ, 두세 이렁 밧논를 다 무겨 더뎌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졍 남의 집 남의 거슨 젼혀 부러 말렷노라. 닉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닉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ᄒᆞ건마ᄂᆞᆫ, 닉 생애(生涯) 이러호딕 설온 뜻은 업노왜라. ㉤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ᄒᆞᆫ 뜻이 온포(溫飽)*애ᄂᆞᆫ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ᄒᆞ리 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딕로 살렷노라.

- 박인로, 「누항사」 -

* 한기태심 :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함.
* 수기치 : 수꿩.
* 실약이 미편ᄒᆞ닉 :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못하니.
* 종조추창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함.
* 소뷔 : 쟁기.
* 첨피기욱 : 저 기수 물굽이를 바라보니.
* 지취 : 뜻과 취향.
* 온포 :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

35.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채 이미지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탈속적인 공간을 묘사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내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대화체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⑤ 감각을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계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백석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박인로의 「누항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숙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떠올리며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① (가)에서는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에서, (나)에서는 '인간 어닉 일이 명 밧긔 삼겨시리.'에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② (가)에서는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를 통해 고난과 방랑으로 점철된 삶이, (나)에서는 '구복이 위루ᄒᆞ야 어지버 이져써다.'를 통해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는 삶이 화자의 숙명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에서는 '세정 모른 한숨'에서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문창을 치기도 하는' '싸락눈'이, (나)에서는 '무심ᄒᆞᆫ 백구'가 화자로 하여금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나)에서는 '태평천하애 충효를 일을 삼아'에서 관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화자가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가)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삶의 역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② [B] :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C] : 삶이 주는 고통이 내면화되면서 비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D] : 동일시할 수 있는 외적 대상을 연상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내면을 담고 있다.
⑤ [A]~[D] : 시상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정서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38.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자연현상을 제시하여 화자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직시하게 되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②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 : 농기구가 제 용도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여 농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내적 지향과 외적 환경을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 : 단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긍정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의 고전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풍속, 제도, 인물들의 가치관 등을 제재로 한다. 그리고 부정적 사회 현실에 대한 저항이나 개혁 등을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소설들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당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조선 후기는 중세 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신분보다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해진 시기이다. 또한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무능한 가장들이 많아지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세태소설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의 사회적 관심사인,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와해되면서 생긴 계층 간의 갈등, 관념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삶의 양태 등을 담은 다양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세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노비들이 상전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을 소재로 한 「김학공전」,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춘풍의 이야기를 다룬 「이춘풍전」을 들 수 있다.

(나) 노자(奴子) 중 박명석(朴明錫)이라 하는 놈이 흉계를 생각하고 저의 동류(同類)를 청하여 의논 왈,

"우리가 매양 남의 종노릇만 할 것 없으니, 지금 상전이 부인과 어린아이뿐이라. 이때를 타서 상전을 다 죽이고 금은보화를 탈취하여 가지고 무량 계도(桂島) 섬에 가 양민(良民)이 됨이 어떠하뇨."

하니, 모든 노속(奴屬)이 일시에 응하거늘, 명석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는 말이,

"그대들의 뜻이 이러할진대 모월 모일에 잔치를 배설(排設)하고 그 날로 계교를 행하자."

하고 각각 돌아가니라.

이때에 학공의 유모가 마침 명석의 집에 갔다가 이같이 의논하는 말을 엿들은 후에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서늘하여 가만히 생각한즉,

'이 말을 부인에게 전하면 내가 그놈에게 죽을 것이요, 아니 고하면 인정상 차마 못할 바이라.'

하고 유예하여 미결하던 차에, 일일은 노자(奴子) 제인(諸人)이 잔치를 배설한다 하거늘, 유모 마지못하여 들어가 부인에게 이 말을 자세히 고하고 정신없이 앉아 눈물을 흘리거늘, 부인이 이 말을 들으매 천지가 아득하여 기절하였다가, 반향(半餉)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려 가슴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이것이 어인 말인고. 이러한 흉계가 있으되 망연히 아지 못하고 이 같은 대환(大患)을 당하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미덕과 나의 목숨은 고사하고 만일 학공을 죽이면

김씨의 향화(香火)를 뉘라서 받들리오. 세상 천하에 이 같이 망극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바라건대 유모는 좋은 묘책을 생각하여 학공을 살려 주면 은혜를 황천에 돌아간 고혼이라도 갚을 것이니 깊이 생각하라."

하고 눈물이 비 오듯 하니, ㉠ 그 참혹한 경상은 일월이 무광(無光)하고 초목과 금수가 다 슬퍼하더라.

유모 다시 고왈,

"주사야탁(晝思夜柝)에 아무리 생각하여도 좋은 계교 없사오나 인명이 재천이라 하오니 설마 어떠하오리까."

하니, 부인이 유모를 붙들고 통곡하여 왈,

ⓐ "유모의 수단으로 살지 못한다면 노자들을 남녀노소 없이 낱낱이 불러 우리 집 재물을 분급(分給)하야 속량(贖良)하여 주고 목숨을 보전하겠으니 모두 다 데려오라."

하니 유모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하와도 저희들이 이미 계교를 정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올지라, 미리 피신함만 같지 못하오니 깊이 생각하옵소서."

부인 왈,

㉡ "도망을 하자 한들 저 놈의 배포 설심(設心)이 이같이 강성하였으니, 혈혈약질(孑孑弱質)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갈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잔 말고."

하며, 학공을 붙들고 실성통곡 왈,

[A] "슬프다. 너의 부친이 나와 무슨 연분이 지중(至重)하여 나이 사십에 자식이 없어 서러워하다가 너의 남매를 얻어 후사(後嗣)를 전하고자 하였더니, 조물(造物)이 시기하여 불행히 너의 부친이 일찌기 세상을 버리시니, 마땅히 뒤를 따르고자 하나 너의 남매를 생각하고 망망한 천지간에 구차히 살았다가, 이 같은 망극지변(罔極之變)을 당하니 어느 친척이 있어 구제하리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유유한 창천(蒼天)은 무죄한 인생을 굽어 살피옵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땅을 깊이 파고 학공을 그 속에 넣고 노비 전답 문서를 전대에 넣고 허리에 띠고, 먹을 것을 많이 넣고,

"배고프거든 이것을 먹고 문서를 잘 간수하였다가, 요행히 살아나거든 우리의 원수를 갚게 하여라. 슬프다. 우리도 살아나서 너와 한가지로 다시 만나 살면 천행(天幸)이요, 불연(不然)이면 한 칼에 삼모자(三母子)가 다 죽을 것이니 조심하여 잘 있거라."

하며 슬픈 눈물로 이별할 제, 학공이 모친의 치마를 붙들고 통곡하며, 모친은 학공의 손을 붙들고 울다가 자주 혼절하니, 그 가련한 경상을 어찌 보리오. 눈물 아니 흘릴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다) 추월이 거동 보소.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괄세하여 내친다. 슬픈 거동 가련하다. 만나 보면,

"내 눈에 보기 싫다."

석경 면경 헷던지며 생증내어 구박할 제, 성외(城外) 성내(城內) 한량에게 의논하되 들경막의 장작인가 전당(典當)집의 은촛댄가, 썩은 나무 박힌 뿌리런가. 이러할 줄 몰랐던가.

"어디로 갈랴시오, 노자가 부족하면 한대나 보태시오."

돈 한 돈 내어주며 바삐 나가라 재촉하니, 춘풍의 거동 보소. 분한 마음 폭발하여 추월에게 하는 말이,

"우리 둘이 갓 만나서 원앙금침(鴛鴦衾枕) 마주 누워, 불원상리(不遠相離) 굳은 언약 태산같이 언약하여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가지 말래더니, 이렇듯 깊은 맹세 농담인가. 이제 이 말 웬 말인가."

추월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 "이 사람아, 내 말을 들어 보소. 청루물정 몰랐던가. 장낭부, 이 낭청도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고 노류장화(路柳墻花)는 인개가절(人皆可折)*이라. 평양기생 추월 성식 몰랐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던가."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바삐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둥 비껴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B] '집으로 가자 하니 무면 도강동(無面渡江東)이요, 처자도 부끄럽고 또한 막중 호조 돈 이천 냥을 내어다가 한 푼 없이 돌아가면 금부옥(禁府獄)에 가두고 주장대로 지르면 속절없이 죽겠으니 서울로도 못 가겠고, 동서 구걸하자니 그도 또한 못 하겠고, 불원천리 가자니 노자 한 푼 없으되 그도 또한 못 하겠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이럴 줄을 몰랐던가. 후회막급 창연하다.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자 하니 그도 차마 못하겠고, 석자 세치 지자 수건 목을 매어 죽자 하니 이도 차마 못 하겠네. 답답한 이내 일을 어찌하면 옳단 말인고. 평양 성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 노소인민 아동주졸(兒童走卒)* 이놈 저놈 꾸짖으니 걸식도 못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인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비는 말이,

㉣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봐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人情之國)이어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리게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긷고 불 사환(使喚)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꼬."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 소리 하려면 내 집 다시 있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없어 '아가씨' 말이 절로 나고 존대가 절로 난다.

〔중략 줄거리〕 춘풍의 처는 춘풍을 구하기 위해 참판의 도움으로 비장 신분이 되어 평양에 와 추월을 문초한다.

"이년 바삐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쭈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로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 주랴. 네가 먹었거든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朱杖)대로 지르면서,

"바삐 다짐하라."

오십도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이 질겁을 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노류장화는 인개가절이라 :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은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다.
* 아동주졸 : 길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39. (가)에서 언급한 '조선 후기의 세태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형상화한다.
②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화되었다.
③ 당대의 풍속, 제도, 인물들의 가치관 등을 제재로 한다.
④ 당대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에서 노비 박명석이 노속들에게 '상전을 다 죽이고 금은보화를 탈취하'자는 데서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와해되어 가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② (나)에서 유모가 학공의 모친에게 노비들의 계교를 알리지 않고 '유예하여 미결하'는 모습에서 당대 사회의 이면에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다)에서 추월이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괄세하여 내'치며 경제력에 따라 춘풍을 달리 대접하는 행태에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태를 엿볼 수 있군.
④ (다)에서 춘풍이 추월의 집 '사환이나 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는 데서 가부장제가 흔들리고 있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⑤ (다)에서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문초하며 '바삐 다짐하라'며 강권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인 여성이 나타난 세태를 살펴볼 수 있군.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B]와 달리 초월자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③ [A]는 요약적 진술로, [B]는 나열의 방식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④ [A]와 [B]는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과거의 잘못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와 [B]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학공 모자가 처한 참혹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서술 방식을 보이고 있다.
② ㉡ :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앞으로 겪게 될 절망적인 상황을 염려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자신의 신분적 특성을 언급하며 춘풍에 대한 홀대가 당연한 처사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 : 인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 :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3. ⓐ와 관련이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고육지책(苦肉之策)
③ 권토중래(捲土重來)　④ 기호지세(騎虎之勢)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선수보, 여우(여배우), 시간강사, 입후보 등은 정식 지위에 올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시 운전수가 모는 낡은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 타이어의 펑크로 임시 역에 서게 된다. 스페어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고치는 동안, 이들은 버스 밖에서 기다리며, 동쪽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희망에 부푼다.

이때 동쪽에서 폐차 직전에 있는 낡은 차 소리가 들려온다. 이윽고 맥없이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난다. 동쪽에서 노 운동선수가 등장. 농구 선수다. 허리가 지독히 휘었다. 낡은 운동백과 쪼그라진 농구 볼을 다 터진 그물에 넣어서 등에 메고 있다. 너무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한다. 그 뒤에서 노엑스트라 여배우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온다. 이때 보조경찰이 노선수보와 노여우의 신분증을 검사한다.

노선수보 네, 농구 선수입니다.
노여우 네, 배우가 직업입니다.
보조경찰 ㉠ 농구 선수지만 증명서에는 보결 농구 선수라고 써 있고, 이분 것은 엑스트라 여배우라고 적혀 있군요.
노선수보 (화가 나서) 내가 남보다 실력이 없어 그런 줄 아세요? 그놈의 팔자 때문에 그런 거요.
노여우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노스페어 운전수 등장. 튜브와 연장을 들고 있다.)
노선수보 (보조경찰에게 서쪽을 가리키며) 이리로 자꾸만 가면 동쪽이 됩니까?
보조경찰 글쎄요.
노운전수 ㉡ 벌써 동쪽을 향해 30년을 달리고 있는데 참 거리가 멀군요. (노선수보와 노여우를 가리키며) 저분들은 팔자를 고치기 위해 벌써 30년째 동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노선수보 (서쪽을 향하여) 아, 벌써 동쪽이 보이는 것 같아. 조금만 가면 동쪽이 나올 거야.

노여우 (역시 서쪽을 바라보며) 네, 동쪽이 보이는 것 같군요. 아, 주연을 맡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노운전수 전 튜브 땜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적당한 곳에 앉아 일을 시작한다.)

역장보 참 기억이 나는군. 30년 전에 이 두 분이 동쪽으로 간다고…… (서쪽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동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갔는데 30년 후인 오늘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군.

시간강사 (노선수보에게) 이리로 가면 서쪽입니다.

노선수보 ㉡ 왜 서쪽이요, 동쪽이지. 동쪽을 향해 벌써 오랫동안 달렸는데 내가 방향을 모르리라고요?

입후보 영감님, 저희들은 서쪽에서 왔습니다. 저리로 가면 서쪽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노선수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요. (노운전수에게) 여보, 이 양반들이 시끄러우니 저쪽에 가서 쉬도록 합시다.

노여우 ㉢ 아, 동쪽이 뵈는 것 같다. 빨리 화장을 좀 해야지. 갑자기 주연을 맡게 되면 곤란해.

노선수보 이번엔 주장을 시킬 거야.

노선수보 퇴장, 노운전수, 노여우도 그 뒤를 따라 서쪽으로 퇴장. 보조 경찰관과 역장보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서쪽 무대로 사라지는 노인들을 손가락질하며 한바탕 크게 웃어댄다.

운전수 자, 튜브 땜질이 다 됐습니다. 곧 떠나야죠. 스페어타이어가 없으니 이 꼴이군.

역장보 ㉣ 스페어타이어는 꼭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넷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지. 스페어타이어가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는 흡사 낮 다음에 오는 밤 같은 존재니까.

운전수 할 수 있나요. 이왕 없이 떠났으니 그대로 갈 수밖에. 자 갑시다.

전보조인물 가자! 가자! 희망의 동쪽으로!

운전수의 연장이 걸려 버드나무의 받침대가 쓰러져 버드나무도 자빠진다. 전원 그대로 퇴장. 동쪽으로

역장보 앗따, 나무가 자빠졌군. 자 손을 좀 빌려주시오.

(역장보와 보조 경찰관이 버드나무를 받침대로 받쳐 다시 세운다. 이때 동서 양측에서 차가 발동하여 떠나는 소리가 난다.)

보조경찰 이것도 동쪽으로 가고 저것도 동쪽으로 가는군. (차 소리가 사라진다.) 자 좀 쉬어 볼까.

역장보 전 들어가 기차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언제 기차가 이 임시 역을 통과할지 모르니까.

먼 데서 차 소리가 또 들려온다.

보조경찰 (관객에게) 좀 쉬려고 했더니 또 다른 차가 옵니다. 신분증을 조사해야죠. 동쪽으로 가는 손님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차 소리가 들려온다.) 저쪽에서도 차가 옵니다. 동쪽으로 가는 손님인 모양입니다.

- 이근삼,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 -

4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접한 내용이다. ㄱ~ㅁ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 이근삼 희곡의 특징
  - ㄱ. 배경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사건들의 개연성이 떨어짐.
  - ㄴ. 등장인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 또는 대사를 반복함.
  - ㄷ.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인물 등을 설명함.
  - ㄹ.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생소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과 소품을 사용함.
  - ㅁ. 등장인물의 이름, 행동, 직업을 통해 특정한 성격이나 유형을 보여 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본주의의 발달은 다수의 소외 계층을 양산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는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는 소외 계층에게 막연하고 거짓된 희망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소외 계층을 특권 계층이 중심이 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 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풍자하면서 거짓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비극성과 그들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① ㉠ :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에서 다수의 소외 계층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군.

② ㉡ : 기약 없이 맹목적으로 희망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성을 느낄 수 있군.

③ ㉢ : 잘못된 방향인지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왜곡된 현실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소외 계층의 간절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군.

④ ㉣ : 희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 대한 작가의 연민을 엿볼 수 있군.

⑤ ㉤ : 스페어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권 계층을 위해 소외 계층을 부속품처럼 만들어 버린 부조리한 사회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